

‘제주~서울’ 항공 좌석난 / 제주도민 이동권 확보 국회 토론회

좌석난 해법 놓고 정부-道 ‘시각차’

정부 “도, 필요 좌석 수 등 파악해 지원 조례 마련 우선”
도 “좌석난 수십년 반복… 정부 차원 관련조직 구성해야”

제주~서울 노선의 항공 좌석 부족 사태에 따른 제주도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와 제주도가 그 해법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 측은 제주도가 도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필요 좌석수와 시간 노선을 먼저 파악하고 제주도 조례에 도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제주도는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제주가 기여한 측면을 고려해 항공사의 제주에 대한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고, 제주도가 항공 문제와 관련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 관련조직 구성을 주문했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답(제주 시갑)·김한규(제주 시을)·김성범(서귀포시) 국회의원과 제주 출신 부승찬(경기 용인시병)·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주최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 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김포~제주 항공편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 대형 항공사 결합에 따른 시장 지배력 완화를 위한 저비용 항공사 슬롯 재배분 등 여러 요인으로 좌석난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7월부터 항공사의 착륙료를 면제해 증편을 권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국토부 관계자

는 “우선 중동전쟁 이후 김포~제주 노선 좌석이 많이 줄어 도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유가가 평소 대비 3배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항공사도 교육지책으로 일부 노선을 감편하는 등 굉장히 이례적 상황”이라고 도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 및 증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항공이라는 것이 여러 운항 여건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일반 노선버스처럼 바로 증편이 쉽지 않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제주노선 운항량만 늘린다고 해서 제주도민의 불편함이 모두 해소될까 생각하

지 않는다”며 “항공사업법에는 도민이나 항공사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 제주도가 도 조례에 도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제주도민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좌석을 도 차원에서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나선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제도적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에 힘써왔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공 좌석난은 과거 20년 동안 계속 반복돼왔다”며 “제주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발전했다는 측면에서 제주도민은 충분히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도민이동권 보장에 힘써왔

는지 그에 대해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어 “제주도정엔 제도적으로 항공 분야와 관련해 책임과 권한이 전무하다”면서 “정부와 제주도정, 도민, 전문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 도민이동권과 관련한 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객수한 한국교통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노선 및 좌석 감소 원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한 13개 슬롯을 저비용항공사로 이전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슬롯 활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그늘막 밑에서 기다림 20일 제주시 동문시장 입구 횡단보도 그늘막 밑에서 시민들이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폐어구에 걸려 신음하는 생물들… 4면 / 오름 땅속에서 산방산급 거대 화산체 흔적 발견… 5면

알림

제33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접수 연장



참가자격

▶기업체, 단체, (공)기관, 학교, 교사, 학생,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한라환경대상

구분	포상내용(명)	상금
일반 및 대학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학교 교사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중고등부	최우수상	50만원
초등부	최우수상	30만원

선정방법

▶신청 시 제출한 세부 공적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단, UCC 공모전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을 심사)

제출서류

▶신청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1부
※한라일보 홈페이지(www.ihalla.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세부 공적 개요 및 증빙 자료 첨부
▶UCC 공모전의 경우 영상물을 저장하여 제출

한라환경 UCC 공모전

구분	포상내용(명)	상금
일반 및 대학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60만원
고등부	최우수상	50만원
중등부	최우수상	40만원
초등부	최우수상	30만원

※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경과한 경우 수상 자격 부여 함
※ 단, 참여자가 주로 제주도민인 경우 공적산거법에 따라 상정할 수 있음

시상일지 및 장소

▶2026년 8월 24일(월) / 한라일보사

접수마감 및 문의처

▶7월 31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jis1006@hallailbo.co.kr)로 접수

▶제출서류 비즈니스부

☎064)750-2291, 2540 / 팩스: 064)750-2520

※ 자세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

제33회 한라환경대상 배너에서 확인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일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확대

도, 근로자 지원 요건 완화·신청 절차 간소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 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원 대상을 기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서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확대했다. 또한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제출 의무를 권고 사항으로 완화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제도 도입 문턱을 낮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도내 8개 기업에서 13명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협력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일하는 부모들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도민과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지하수를 아끼는 오늘, 제주의 미래를 지킬 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
도민 모두의 약속과 실천이 더해질 때, 제주의 청정한 물은 지속됩니다.**

- 빗물, 하수재처리수, 중수도 등 대체수자원 적극 활용
- 비료·축산분뇨·하수 등 지하수 오염원 관리 강화
- 일상 속 물 절약 실천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